

데스크 시각



송기동
문화2부장

#은행에서 26년간 재직하다 명예퇴직 한 ‘만년 대리’ 아빠에게 삼남매가 감사패를 만들어 전달한다.

“...아빠의 딸로서 아들로서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해서, 좋아하시는 술 한 잔 함께 마시 드리지 못해서, 먼저 안아드리지 못해서, 사랑한다 말하지 못해서, 아빠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보라에겐 존경하는 아빠, 덕션에겐 친구 같은 아빠, 그리고 노을에겐 든든한 아빠가 되어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자식 일동.”

#시집을 가는 딸이 아빠에게 편지를 썼다. “...비록 반지하 단칸방이지만 너무 많은 사랑 받았고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로 태어날래. 아빠 미안하고 사랑해.” 아빠는 딸의 편지를 읽으며 연신 눈물을 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무게

린다. 아빠도 딸에게 편지글을 남겼다.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애비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란 걸 잊지 말아라. 내 딸 사랑한다. 내 딸로 태어나 줘서 더없이 고맙다.”

쌍팔년도 서울 상문동 봉황당 골목 다섯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하 ‘응팔’) 속 한 장면이다. 최근 막을 내린 ‘응팔’은 시청자들을 타인머신에 태워 1980년대 속으로 이끌었다. 그 시절에 청춘을 보낸 4050세대는 물론 그 시절을 모르는 1020세대 역시 과거 속으로 돌아가 울고 웃었다. 따뜻한 가족애(愛)와 이웃 간의 정(情)을 중심에 놓은 스토리 전개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응팔’이 보여준 가족애

‘응팔’의 폭발적인 인기는 우선 유통과 문화 전반에 걸쳐 복고(復古)문화를 불러일으켰다. 생선이 중단된 상품이 재출시 되거나 스페셜 에디션이 선을 보였고, 드라마에 깔린 80년대 가요는 리메이크돼 새로운 느낌으로 다거렸다.

무엇보다 ‘응팔’ 속에 등장하는 가족들의 사랑법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특히 묵묵히 뒷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다섯 가족의 부모가 돋보였다.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임이다. 공께 우리 딸이 쪼개 봐 줘.” 둘째 딸 덕선의 투정에 아버지 역시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30여 년이 흐른 후에 덕선이 “그 시절(1980년대)로 돌아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젊고, 태산 같았던 부모님’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이미 종영이 됐지만 드라마가 한창 방영되던 때 마침 사회문제로 이슈화된 일련의 사건은 요즘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는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무게’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하였다. 가령 30대 아버지와 동지녀로부터 학대를 받다 가스배관을 타고 극적으로 탈출한 11세 소녀가 있었다. 소녀의 몸무게는 불과 16kg(또래 평균 몸무게 39.2kg)으로 아일 대로 아وى어 있었다.

또 다른 비정한 30대 아버지는 초등학교생 아들(사망 당시 7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3년간 냉장고에 보관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밖에 어느 20대 아들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에게 독극물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살해했다.

1980년대 드라마 속 아버지상과 현실 속 요즘의 아버지 모습을 비교하자면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실제로 30년 전 태산 같았

던 아버지의 위상은 낮을 대로 낮아졌다. 특히 요즘 경제난과 함께 실직·명예퇴직이 잇따르며 존재감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꽃잎이 지고나면 열매가...

‘응팔’ 속 아버지가 ‘가슴’으로 자식들을 키웠다면 요즘 아버지들은 ‘머리’로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드라마 속 아버지의 모습이 돋보였던 것은 지금과 달리 존경 받고, 친구 같고, 든든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존재였기 때문일 것이다.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털이 부드럽고 윤이 나다)’라고 했다. 아파트 문화에 밀려 사라져 버린 골목 공동체의 복원 못지않게 삭막해진 가족간 사랑을 다시 짓고, 아버지의 자리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

극 중 보라·덕선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잘리긴 했어도 자식 농사만큼은 잘 지었으며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오늘 참말로 큰 거 하나 깨달았네. 꽃잎이 지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꽃잎이 지고 나면 또 열매가 맺히더라고. 내가 그걸 까먹어 버렸어. 내 꽃잎이 진다고 서럽고 아쉬워만 했지 내가 그걸 못 봤네... 이런 부모 마음을 자식들이 언젠가는 응답할 것이네. 고맙다고.”

/song@kwangju.co.kr

은펜칼럼



옥영석
2005년 수상자

여러 해전 근무복을 제작하는 일을 맡은 적이 있었다. 멋을 내는 데 나를 고집을 부려온 터라, 디자인 좋고 일하는데 기능적으로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칠 뻔한 경험이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거라 똑같은 오렌지 색 옷감을 두고서도 동등의 참수복 같다고 해 소스라치기도 했다. 같은 세로줄무늬 블라우스를 두고도 어떤 이는 날씬해 보여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촌스러운 무늬라고 투덜댄다. 그러니 수천 명 입어야 하는 유니폼이나 단체복 제작하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60%만

웃 고르기, 사람 고르기

나와도 잘 맞든 웃이라고 여긴다. 백인백색, 각양각색이라는 말을 그 해 내내 실감하고 또 실감해야 했다.

그래서 대기업의 유니폼은 유명 디자이너가 수억 원이 넘는 사례비를 받고 제작하기도 하지만 서너 개를 만들어 많은 사람이 선택한 디자인을 선정한다. 문제는 언제나 뒷말들이 많다는 것이다. 서너가지 시제품이 경합하면 절반 이상 지지 받는 건 어렵고 10~20% 차이 나게 마련인데 하나가 선정되면 나머지를 택한 절반 이상의 구성원들은 당연히 불평하게 마련인 것이다.

그 선택에서 사표를 던진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그 웃을 입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선정된 웃이 더 기능적이든, 좋은 소재를 썼든 이미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린 채, 선택받지 못한 웃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고르고 선택한다는 것은 비단 웃뿐 아니다. 선물하나 하는데도 양말 일지 타이일지를 골라야하고 점심을 같이 할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 주말에 산행을 같이할 친구도 중요하고, 점수에 맞는 학교와 전공을 고르는 것 못지않게

우리는 또 4월이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너 명 중 한 명을 고르는 선택을 해야 할 터 둘 중 한 명을 고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후보군이 많아지면 오히려 선택이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사람 됨됨이가 되어야하고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은 살아온 이력이 아닐까 싶다.

학창시절 존경했었던 대표적 서정시인 한 분이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치자는 시를 쓰고 연설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그를 존경할 수 없었다. 심금을 울리던 그의 언어와 주옥같은 그의 시들은 오히려 가식과 위선의 증표처럼 여겨져, 시가 싫고 시인들이 위선자로 보였다.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고 시인은 시로 평가받아야한다지만 그건 자신과 별 관련이 없을 때 쓰는 기준일 뿐이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남긴 발자취는 당장은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대중을 휘어잡는 화술과 후광이 비치는 듯한 인상을 가졌다 해도 집안

과 집 밖에서의 행동이 다르고, 심년 전과 오늘의 언행이 다르다면 연가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이제 다시 정거장이며 지하철역에서는 무리를 지어 합창하듯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누어주기 시작할 것이다. 명문학교를 다녔고 좋은 직장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를 차지했던 이들이 악수를 청하거든 웃음 띤 얼굴과 인상보다, 그의 친구와 직장동료와 사촌팔촌보다 먼 친척들에게 그가 걸어온 길과 이력과 사생활을 물어볼 일이다.

머리 좋은 사람 뿔어서 들면 수능 만점자들도 많고, 인품 좋은 사람 내세우려면 관상가에게 추천받지, 시간 들고 돈 쓰며 선거관 벌일게 아니다. 웃 하나 잘못하면 한두 계절 불편하지만 사람 한 명 잘못 고르면 4년 아니라 잊혀질 세월 내내 심기 불편하게 지낼 노릇이니, 이번에는 정말 따져보고 뽑을 일이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변화하는 다문화가족, 발전된 정책 필요

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또 입국 초기부터 지원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생활과 관련된 교육 참여를 꾸준히 하고 한국 교육도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잘 받아서 적응에 어려움이 덜했고 가족관계도 원활한 상태이며 한국 사회 관련 정보도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의 경우 광주 5개구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여러가지가 개설되어 있다. 센터에 오는 집합교육과 찾아가는 방문교육이 있다. 그런데 참여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경우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단편적인 프로그램만 이용하거나 아예 외출이 제한된 경우이다.

다문화가족 교육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거의 실시하지 않았던 다문화적 배경이 깔린 교육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최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는 국적 취득에 거의 의무적이다. 다행히 초기 입국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2016년도부터는 의무교육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이주민 본인의 노력과 가족의 배려가 필요한데 가족이 서로 자주 대화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초등학교에만 들어가도 모의 한국어 능력을 문제 삼고 그것이 모와

자녀 관계에도 나쁜 영향도 준다.

최근에는 이주민들이 국가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시스템 관리가 되어 있어서 예전처럼 중복이나 과잉 혜택은 줄어들었다. 오히려 참여하지 않은 문제가 더 크다. 프로그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 하여도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아 출입국관리소나 주민자치센터, 대중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가 더 잘되어야 한다. 국가도 다문화가족 지원을 차츰 소득에 따른 이용자 부담분을 확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이혼도 국내 전체 이혼 중 11.2%. 광주의 경우 9.0%로 2011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결혼 생활 기간 5년 미만의 이혼이 45.2%이다 보니 자녀가 어리고 또 다시 재혼하는 경우도 많다. 부부 모두 재혼이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 가족 형태와 가족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 후 다시 외국인과 결혼하는 등 새로운 국제결혼 부부가 생겨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한국인 부부끼리 출생한 전 배우자 자녀도 있고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또 외국에서 들어 온 중도입국 자녀도 있다. 이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공동체가 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는 자녀 성장 발달을 위한 진로 상담과 부모 교육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또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공교육 기관 입학 전 준비단계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이상 자녀를 위한 장학금 연계도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 훈련과 일자리가 다양하게 창출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분야로 결혼이민자 멘토, 산모도우미, 요양보호사 등 활동하며 다문화이해 강사, 통번역 지원사, 이중언어 강사, 외국어 강사 등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직업 창출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교육도 더 많이 실시되면서 아울러 결혼이주민들도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다문화가족 지원이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정의와 인권에서 평등, 정의, 복지, 민주적 자유를 확장시키는 다문화정책 목표를 추진하되, 공존과 배려의 관계성과 연대성이 증진되어야 할 것 같다. 다문화 가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제도를 이해하고 문화 교류가 평등하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이를 공감하고 지지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社 說

호남 민심 아랑곳 앓는 김 위원장의 마이웨이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4·13 총선에 대비해 선거대책위원을 인선하고 인제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더민주의 행보를 들여다보면 호남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먼저 최근 구성된 선대위 면면으로는 호남 유권자들이 요구했던 ‘친노 패권 청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종진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짜여진 선대위는 박영선, 우윤근 의원, 김영춘 부산시장위원장, 화순 출신 양항자 전 삼성전자 상무 등 두루 안배하는 데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긴 한다.

하지만 문제인 대표의 ‘신(新) 복심’으로 불리는 최재성 총무본부장을 비롯해 진선미 의원, 손해원 홍보본부장, 박범계·유은혜 의원 등 범주류 측 인사 가 다수 포진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계파주의의 해체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더민주 합류 당시 “친노 패권주의를 수습할 능

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오지도 않았”다고 했던 김종진 위원장은 처음 지냈던 소신을 지킨 것인지 묻고 싶다.

그는 “(선대위 인선 논란과 관련)여하간 어떠한 반응이 있느냐에 대해 저 자신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고 한다. 특정인을 꼭 짚어 배척해서도 안 되겠지만 호남 유권자들이 탈당 사태의 근원이라고 지목했던 친노 청산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국보위 참여에 대해 후회 없다”는 입장에 이어 또다시 지역 민심을 거스른 것이다.

지역에서는 더민주가 ‘정치적 목적’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길 씨를 입당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회의 통합으로 더민주는 야권 주도권 싸움을 한층 치열하게 벌여야 한다.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앓은 수를 쓰려한다면 호남민들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더딘 제설 작업이 눈길 시민 불편 가중시켰다

가폭적인 한파와 폭설이었다. 20cm 이상의 눈 폭탄에 출근길 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의 더딘 제설 작업은 시민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켰다. 특히 광주 문성고 앞 고갯길의 경우 미끄러운 도로 사정으로 인해 시내 버스마저 운행을 기피하기도 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설은 천재지변이지만 이번 출근길 교통대란은 영화 같습 등 제설제만으로 해결하려는 광주시의 원시적 대책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월요일 아침부터 칼바람을 맞으며 걸어서 직장으로 가거나 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지각사태 등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번 교통대란이 광주시의 제설 전략 실패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한다. 지난 21일부터 20cm 이상의 눈폭탄이 예고됐는데도 광주시는 폭설에 효과적인 건설 장비인 그레이더(grader)를 동원하지 않고 영화감독과 삽질 등 예년 수준의 방식

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를 동안 광주시에 25.7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데다 기온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러 영화감독 삽질 등은 효과가 떨어지는데도 그레이더 투입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뒤늦게 그레이더를 투입한 뒤부터 제설 작업에 조금씩 속동이 트이기 시작했다.

광주시가 휴일에 빠른 전략으로 그레이더 투입을 서둘렀다면 월요일 출근대란은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 이번 폭설 기간 그레이더가 투입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량 이동 속도 등 도로사정은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만 봐도 시의 대응이 안아줬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자연재해는 인력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그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폭설 등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강원도 동부권은 눈이 많기로 유명하다. 상송기류를 타고 태백산맥을 넘어 온 차가운 고기압이 동해 쪽에서 올라온 따뜻한 저기압과 만나 눈구름을 만든다.

눈에 익숙한 이곳 주민들에게 웬만한 폭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4년 2월 강릉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은 경우가 달랐다. 2월 7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내린 눈의 양이 무려 119cm에 달했다. 1911년 기상관측 이래 103년 만의 폭설로 자

동차가 지붕만 남기고 사라졌다.

위기는 능력을 겸

중하는 기회다. 공무원들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위기 대처 능력은 제설 작업에서 빛났다. 공무원들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맡은 구역에 나가 눈을 쓸었고 시민들도 가세했다. 마비될 뻔한 도심 기능은 하루 만에 정상으로 되찾았다. 그 해 강릉시의 시민들이 뽑은 10대 뉴스 1위는 ‘슬기롭게 폭설을 극복한 일’이었다.

강릉시 담당 공무원은 “러시아 속담에 영화 40도 이하는 추위가 아니고, 40도 이하 술은 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강릉에선 40cm 이하는 눈이 아니다”는 말

로 자신감을 표현했다. 강릉은 이때부터 ‘제설의 달인’이란 명예를 얻었다.

금세기 최악의 눈폭풍이 지나간 미국 동북부에선 워싱턴시의 제설 대책이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다. 워싱턴 최초의 흑인 여시장인 무리엘 바우저는 눈이 내리기 하루 전부터 이를 동안 집무실에서 자며 특별대책본부를 두고 제설 장비를 점검했다. 중국에서까지 제설용 영화감독을 미리 구입하고 400여 대의 제설 차량을 대기시켰다.

동북부에서 28명이 폭설로 사망했지만 워싱턴에선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머리

에 털모자를 쓰고 브리핑장에 나온 바우저는 “이를 만에 햇빛을 본다”며 “눈 폭풍을 이겨 낸 시민과 시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5년 만의 폭설로 도심이 마비된 광주시는 제설 대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폭설이 예고됐는데도 미리 대비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대응한 게 화근이었다. 매뉴얼을 갖춰 미리 준비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도 느끼게 된다.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기 고



한신애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이 일반화된 지도 25년이 되어가고, 다문화가족 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세워진 것도 10년을 넘어 썼다. 국내 외국인과의 혼인은 2005년을 기점으로 혼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다문화 혼인은 2만4387건으로 전체 혼인 대비 8.0%로 ‘한국 남자 + 외국 여자’가 전체 다문화 혼인의 63.6%, ‘외국 남자 + 한국 여자’가 24.1%를 차지했다. 출생을 보면 2014년 다문화 가정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비슷한 수준이다.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29.3세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셋째아 출산이 증가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도 과거보다 많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안정되게 잘 살게 되는 배경은 부부나 가족들이 서로 신뢰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2-9500)		(FAX 227-0195)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